

1교시

국어 영역

[목차]

- ∴ 사회 [4-7]
- 경마식 보도 (24.11)
- ∴ 사회 :: 읽어읽기
- 데이터 이동권 (24.09)
- 행정입법 (21.09)
- 대공황 (2008 MDEET)
- ∴ 기술 [8-11]
- 이상치와 결측치 (24.11)
- ∴ 기술 :: 읽어읽기
- 3D 영상의 제작 과정 (21.11)
- 이중차분법 (23.06)
- 가능세계 (2019.11)
- ∴ 인문 [12-17]
- 『노자』에 대한 유학자들의 해석 (24.11)
- ∴ 인문 :: 읽어읽기
- 조선의 신분제 (24.09)
- 북학론 (21.11)
- 아도르노의 미학 (23.09)

[유의사항]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오르비의 본체만채! 님께 있습니다.
- www.orbi.kr/00066339682/ 원본은 다음 링크입니다.
- 작성자인 본체만채! 님과 해당 자료를 평가원화한 편집자는 다른 인물입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11 (사회)

㉠경마식 보도는 경마 증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2.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3.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4.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분석>

<보 기>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2024.11 『경마식 보도』 해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1문단>

『경마식 보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장단점이 소개되는 첫 문단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나왔으니, 뒤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질문 : **Problem - Solution**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내용 예측에 활용할 수 있었는가?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문단-1>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대상이 언급된다면, 반드시 내용을 끌고 와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1문단에 나온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이 뭐였나요? “선거의 주요 의제 도외시, 공정성 저해”였습니다. ㉡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네요.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보도를 중단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해결책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가치 중 “공정성”의 손을 들어줬네요. 법 지문에서 이렇게 법적 가치를 저울질하는 경우에는 잘 체크해두도록 합시다.

핵심 질문 : 이전 문단의 내용을 현재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법적 가치의 저울질**을 잘 정리했는가?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문단-2>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는 ㉡를 전제로 하는 법령입니다. 전제-결론 관계, 부분-전체 관계, 상위-하위 관계 등의 관계는 체크해두도록 합시다. 특히나 ㉡, ㉢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신경써서 살펴보아야겠죠? ㉣가 금지하는 대상들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나 1문단에 제시된 문제점들 중 “공정성”에 대한 편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역시나 1문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서열을 표시할 수 있었던 ㉣와는 다르게 “경합”이라는 표현만을 허용하네요. 단순한 비교-대조이지만, 병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만큼 잘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핵심 질문 : ㉡와 ㉣의 **상위-하위 관계**를 파악하고, ㉣와 ㉣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하여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가?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문단>

계속해서 1문단에 제시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을 통한 해결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방송 토론회”를 통한 해결책을 나타내네요. ㉠은 ㉡의 하위규정입니다. 관계 잡아주시고! 본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학 지문에서 요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Index를 매겨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다만”을 통해 앞에서 말한 요건에 대한 예외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예외는 법학 지문의 문제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포시를 해두고 정확히 체크해주세요.

핵심 질문 : 법학 지문에서 **원칙**과 그의 **요건**, 그리고 원칙의 **예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4문단>

위의 “제한조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론내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하지만.. ㉡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으니, ㉢에서 파생된 ㉣ 역시나 합헌인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과 그 근거를 파악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구성은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되었는데, 이 지문은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 넘어오기로 해당 지문을 삽입했으니 다시 연습해보시길 권합니다.

㉢는 해당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유권자의 직접 비교”는 1문단에서 제시되었던 “선거의 주요 의제 도외시”라는 문제점의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는 해당 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토론회 개최)를 박탈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제시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핵심 질문 : **상반되는 두 의견**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하였는가?

<총평>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지만, 1문단의 “문제점”이 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흐름이 이어지는 글입니다. 부분/전체 관계도 미묘하게 많이 숨어있어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풀 때는 여기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히 살펴봅시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① 1문단에 제시된 정보입니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정보입니다. 시청자는 흥미를, 방송사는 뉴스 창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다 봐야겠네요.

- ③ 1문단에 제시된 경마식 보도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 ④ 이 글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점”이 핵심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⑤ 1문단에 제시된 경마식 보도의 장점이었지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① 2문단에 제시되었던 ㉡의 규정에서 선거 6일 전에 보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고, 이는 1문단의 문제점과 연결지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이로부터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도 공정성에 위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에서 제시된 “초청 요건”들 중 후자를 충족시킨다면, 정당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③ 법적 이념을 저울질하는 내용은 잘 체크해두라고 말씀드렸죠? 충돌하는 이념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아닌, 공정성과 알 권리 &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④ ㉡의 규정에 제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과 ㉡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후보 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죠.

3.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코멘트>

개연성의 강화/약화 파악하기

지문 해설에서 주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장의 “전제”를 잘 판단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문항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제”를 강화시키는 경우에는 입장이 강화되고, “전제”를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입장이 약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각각의 전제를 정리해보자면,

㉡는 후보자 수가 줄어들어 주요 의제에 집중할 수 있기에 찬성이었고, ㉢는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공정성이 위배되기에 반대였죠. 제시된 각각의 근거가 전제를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 살펴봅시다.

- ① 후보자들의 수가 심층적 토론, 즉 주요 의제에 대한 집중과 관련이 없다면 해당 전제는 약화됩니다.
- ② 주어진 상황은 정치 신인을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주는 경우로, ㉡의 전제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②이고, 여기서 손가락을 걸고 지나가면 좋았겠습니다.
- ③ 주어진 상황은 공정성 위배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④ 주어진 상황은, ㉢의 전제인 초청 대상 후보자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이므로 ㉢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 ⑤ 마찬가지로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불공평해지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의 주장은 강화됩니다.

4.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코멘트>

비교와 대조

앞에 나왔던 ㉡, ㉢, ㉣에 제시된 법칙들을 정확히 구분하며 풀어내야 하는 보기 문제입니다. ㉡가 ㉡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규정들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줍니다.

- ① 해당 상황에선 오차 범위 밖의 차이가 나므로, ㉠과 ㉡의 규정 모두에 지장이 없겠네요.
- ② 2차 조사 결과에서 A와 B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은 ㉡와는 다르게 이 경우에서 “우세”라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았었죠? 이 선지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② 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손가락을 걸어주셨어야 합니다.
- ③ 선거일 4일 전에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됩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도 A와 B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에 “경합”만을 허용하는 ㉠에도 위배되겠네요.
- ④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밖에 있고, 2차 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2차 조사 결과에서 선지의 진술은 “오차 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꼭 밝힐 것을 요구하므로, 1차 조사 결과는 ㉠에 위배되지 않지만 2차 조사 결과는 ㉠에 위배됩니다.
- ⑤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는 표현은 ㉠에도 위배되지 않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편, 선거 4일 전에는 보도 자체가 금지가 되므로 ㉡에는 위배된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문제 Comment>

지문의 난이도는 낮은 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장의 개연성 강화/약화를 묻는 3번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점을 물었던 MDEET 지문이 있는데, “읽어읽기”에 넣어둘 테니 풀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한편 4번은 늘 묻는 비교/대조, 법학의 요건을 묻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묻지 않았던 포함관계, 복잡한 비교-대조의 범주 파악 등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¹⁾도 알아둡시다.

<정리용 MEMO>

1) 편집자의 사견입니다만, 2025 수능의 『명예훼손』 지문이 이미 그 결과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1년 전에 만든 남의 자료를 다시 편집한다고 한 것도 저 지문 때문이니, 한 번 같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회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09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①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②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③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⑥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 ② 교통 이용 내역이 집적·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2. [A], [B]의 입장에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입장에서, ㉠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는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4.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용이(容易)해져	근거(根據)하여
②	유력(有力)해져	근거(根據)하여
③	용이(容易)해져	의탁(依託)하여
④	원활(圓滑)해져	의탁(依託)하여
⑤	유력(有力)해져	기초(基礎)하여

[사회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09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 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상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과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타내기
- ② ㉡ : 드러내어
- ③ ㉢ : 헤아릴
- ④ ㉠ : 마주하기
- ⑤ ㉢ : 달라진다

[사회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 MDEET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대량 소비 풍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 인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 FRB는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다라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불태화(sterilization) :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

10. 윗글을 통해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11.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12.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윗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 ③ FRB의 금융 긴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MEMO>

<MEMO>

사회 - 엮어읽기				
데이터 이동권	24.09	③	⑤	④ ①
행정입법	21.09	⑤	① ⑤	④ ③
대공황	08MDP	①	⑤	③

〈MEMO〉

〈 엮어읽기 Comment 〉

이번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요소, 더욱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세트들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 지문으로, 이전 까지와는 다른 평가원의 법 지문 출제 경향을 24학년도 수능과 더불어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쟁점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그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니 엮어서 학습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트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 지문으로, 이번 세트에서는 약하게 다루었던 법 조항들의 비교-대조,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는 세트입니다. 수능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대상들의 관계를 다루는 연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담았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2008학년도 MDEET에 출제되었던 “경제” 지문입니다. 이번 평가원에서 “개연성”의 강화/약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점을 묻는 문제가 12번 문제입니다. 글에 나타난 “주장”의 “전제”가 주어진 상황에 의해 강화되는지/약화되는지를 살펴보고, 2024 수능 지문의 3번 문제와 비교하며 학습해보시길 바랍니다.

<MEMO>

<MEMO>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11 (기술)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기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 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 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 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 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 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2.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3. ㉠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 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 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형성(形成)하기
- ② ㉡ : 누락(漏落)되어
- ③ ㉢ : 도래(到來)한다
- ④ ㉣ : 통과(透過)하는
- ⑤ ㉤ : 소원(疏遠)하여

<MEMO>

[2024.11 『이상치와 결측치』 해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기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1~2문단>

1문단부터 바로 “결측치”와 “이상치”라는 문제점이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뒤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이 나오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봅시다.

2문단에서는 “결측치”의 해결 방법이 나오네요. 평균/중앙값/최빈값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교-대조하며 처리해 봅시다.

핵심 질문 : P-S 구조를 내용 예측에 활용할 수 있었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해결책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가?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3문단>

결측치의 해결 방안에 이어, 이상치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네요. 문제의 원인으로 “측정 오류/왜곡된 데이터”의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문제-해결의 구성을 따르는 지문에서, 문제의 원인이 제시되면 해결방안이 이 원인을 어떻게 제거/보완해주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원인을 정확하게 체크해두고 넘어갑시다.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특징을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치”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겠죠? “중앙값”의 사용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셨나요? 평균을 사용하면, “왜곡된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 해당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중앙값을 사용하면 왜곡된 데이터의 유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중간 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중앙값”을 사용하는 해결방안을 통해, “왜곡”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독해 과정에서 파악하고 갔다면 2번 문제는 순삭입니다.

“결측치의 해결”, “이상치의 해결”이라는 두 개의 기술이 나왔으니, 두 개의 기술 사이의 관계(비교-대조)를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았겠습니다. “평균/중앙값/최빈값”의 세 가지 수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결측치와는 다르게, 이상치는 “중앙값”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네요.

핵심 질문 : P-S 구조에서 Solution과 Cause의 관계에 주목했는가?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 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 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4문단>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에 대한 “이상치”로, 이상치의 범주가 바뀌네요. 앞의 “이상치”의 정의인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생각해 보면, 직선 L 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이 이상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질문 : 개념의 정의와 예시를 연결할 수 있었는가?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 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 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 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5문단>

앞에서 논의되었던 “수치에 대한 이상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직선을 찾아내는 게 이상치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 기법”이 해결방안이 되겠네요. 이 뒤에 과정을 나타내는 서술이 이어지는데, 이런 서술은 과정별로 끊어치며 단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①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
- ②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 ③ 해당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
- ④ [정상치 집합의 개수 > 문턱값]이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음 (아니면 버림)
(여기에서, “문턱값”이 미리 “정해둔” 기준이라는 점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고유/정해진 등의 서술은 기술 지문에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점들이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멀어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다는 뒤의 설명을 고려할 때,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좋다는 점도 알았으면 좋았겠습니다.)
- ⑤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 로 선택

해당 과정을 거치면 “왜곡된 데이터”라는 문제의 원인을 최소화시키는 직선을 구할 수 있을 테니, “이상치”라는 문제의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핵심 질문 : 복잡한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문턱값이라는 정의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총평>

정직하게 1문단에서 문제점이 제시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이런 문제-해결의 구성에서 지문의 기술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거나(혹은 최소화하여) 해결하는지를 독해하길 요구하는 지문은 기술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제가 지문 해설에 써둔 생각들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코멘트>

필연성과 가능성의 구분

이 세트에서, 필연성과 가능성의 구분을 요구하는 선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번 문제의 4번 선지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필연적인 선지는 “~하다”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가 아니다”에 해당되는 예시가 하나라도 있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가능성적인 선지는 “~할 수 있다”와 같이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런 선지가 틀리려면 “~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됩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이중차분법” 세트에서 이를 묻은 적이 있는데, 엮어읽기에 넣어둘테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 ① 1문단에 따르면, 데이터가 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데이터의 특징은 평균으로, 최빈값으로, 중앙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값은 “이상치”가 되겠죠. 손가락을 절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았겠습니다.
- ④ “필연성”과 “가능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이 선지가 틀리려면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없다”를 반박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값은 “석차를 나타내는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석차를 나타내는 자료라도 동일한 수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상치의 정의는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었고, 이런 값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측정 오류였습니다. 문제 자체와 문제의 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오류가 있더라도 데이터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지 않으면, 이상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2.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코멘트>

문항 겨냥하기

중중, 이 문제와 같이 “~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평가원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물어보기에, 이런 문항의 정답 선지는 기술의 목적, 해결 방안과 같은 지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발문이 포함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다면 지문을 읽는 중이나, 혹은 선지를 읽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서 선지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이유는 “정상적인 값들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은 이상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지요. 이를 생각하고 선지를 본다면 정답은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 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 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코 멘 트>

보기 독해하기

종종 이 문항과 같이, 보기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때, 보기는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새로운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기에 나오는 대상이 지문에 나오는 대상과 비교-대조 등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런 관계까지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정리>

지문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A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해결책인 “B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정에 대한 서술이 나열되니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 ①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
- ② 모든 점에서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함
- ③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 선택
- ④ [정상치 집합의 개수 > 문턱값]이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음 (아니면 버림)

- P: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

B기법은 “다른 값들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은 값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의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들과 가장 가까운 후보 직선을 선택”한다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개선되긴 하겠지만,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기에 온전히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네요.

지문에서 제시된 A기법과 비교-대조를 해보아겠다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A기법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을 후보 직선으로 정하는 반면 B기법은 임의로 후보 직선을 정합니다. 또한 A기법은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직선을 선택하는 반면, B기법은 점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합니다. 이런 대립 point를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후보 직선의 결정	최적 직선의 결정
A기법	두 점을 이음	Max(정상치 집합)
B기법	임의로 결정	min(점과의 거리)

-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 ① A기법은 두 점을 지나는, B기법은 임의의 후보 직선을 가정합니다.
- ② 두 기법 모두 후보 직선의 가정 과정에서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 ③ 이 선지는 “필연적”으로 서술되어 있기에, 100% 옳지 않다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A기법의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 것, B기법의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는 것 모두 필연적이지 않기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A기법의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는 경우, B기법의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④ 앞부분은 필연적으로, 뒷부분은 가능적으로 서술된 선지입니다. A기법에서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다”는 것은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크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앞부분의 서술은 틀렸습니다. (이상치 개수,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모두 문턱값보다 적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뒷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맞는 서술입니다.
- ⑤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가능적으로 서술된 선지입니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두 점을 무작위로 연결하여 결정되므로, 정상치 집합에 이상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 부분의 서술은 옳습니다. 한편, B기법에서도 후보 직선은 임의로 결정되므로, 이상치를 지나는 후보 직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문 제 Comment>

앞 지문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 대폭 낮아진 반면, 선지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보기”와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A기법과 B 기법을 정확히 비교-대조할 수 있어야 했고,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필연성과 가능성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지더라도 문제의 난이도를 통해 여전히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 어휘 문제인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기술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11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 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 하면 동영상이 된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

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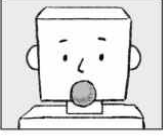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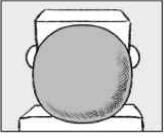

2.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3.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4.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숫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 ②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었겠군.
- ③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 ④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 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숫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기술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06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다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6. <보기>는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클</u> ② 클 ③ 같을 ④ 작을 ⑤ 작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클 작을 클 클 작을 |
|---|--|

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8.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 ② ㉡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뀌 바다로 갔다.
- ③ ㉢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 ④ ㉣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⑤ ㉤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기술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1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1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 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 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MEMO>

Blank area for writing a memo.

<MEMO>

<MEMO>

기술 - 엮어읽기				
3D 영상	21.11	②	②	④ ④
이중차분법	23.06	①	⑤	④ ②
가능세계	19.11	①	②	③ ④

〈MEMO〉

〈엮어읽기 Comment〉

비슷한 제재를 다루고 있는 “기술” 세트, 그리고 필연성/가능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세트를 엮어읽기 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경우, 이번 수능 지문과 비슷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병목 효과”라는 문제점의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고, 두 가지 기술인 모델링과 랜더링을 비교-대조하는 흐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수능 2번 문제와 유형도, 물어보는 지점도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능보다 짹짹하지만, 분명히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니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세트는 소재 자체는 기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문 독해 중에는 “개념과 예시를 연결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차분법”이라는 정의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것인데,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 부연되어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개념과 예시를 연결지어서 이해해보세요. 이 지문을 굳이 엮어읽기 지문으로 수록한 이유는 5번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수능의 기술 세트 1번/4번에서 중요하게 물어본 “필연성-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이해를 연습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세트는 아예 지문의 주제가 “필연성-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연적인 것과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지문 독해와 문제 풀이를 통해 많이 연습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두 번째 세트와 비슷한 “개념과 예시를 연결짓는 연습”, 12번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번 수능 2번 문제와 유사한 “선제적으로 판단하기” 연습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MEMO>

<MEMO>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11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

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2.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4.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5.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6.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 ②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 ③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 ④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 ⑤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2024.11 『노자』의 도 해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1문단>

특별한 내용은 없는 1문단입니다만, 「해로」, 「유로」와 같은 책 이름이 세부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뒤에서 『노자』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법치를 통한 부국강병”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서론을 통해 본문의 뒷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가-2문단>

본격적으로 한비자의 『노자』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네요. 2문단은 『노자』에와 한비자의 ‘도’에 대한 입장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앞 문장의 말을 길게 재진술해둔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 됐겠습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재진술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 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3문단>

“Not A But B”의 구조로, “도의 항상성”에 대한 한비자의 해석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올 때는 “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꼭꼭 눌러 읽고 넘어가지길 바랍니다. 선지에서 “A”에 대한 재진술이 나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틀린 선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두 문장은 2문단과 앞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재진술해둔 표현들인데, 이런 재진술 표현은 파편화된 세부정보로 이해하지 말고, 앞과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의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통해 뒷 문단에선 본격적으로 “법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문단의 핵심 질문 : Not A but B 구문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재진술된 표현끼리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4문단>

2, 3문단과 연결하여 읽으면 결국 말만 조금씩 바뀌가며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를 ‘시비 판단의 근거’라고 규정하면서 1문단의 ‘법치’와 연결시키네요. 그리고 “사회 혼란의 원인”과 “욕망의 제어 방법”에 대한 노자와 한비자의 입장 차이를 비교-대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자와 한비자를 비교-대조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노자	한비자
도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	
사회 혼란의 원인	인간의 욕망	
욕망의 제어 방법	욕망의 제거	법

또한 사회 혼란의 원인인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 “법”이 한비자가 해석한 노자의 “도”가 되겠죠. 이처럼 한비자는 “노자”의 도, 사회 혼란, 욕망의 제어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법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면 1문단의 내용이 완벽하게 연결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가) 지문의 경우 중간 부분에 비슷한 말이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되는 “paraphrasing”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워딩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말로 처리 해주시면 글을 읽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각 문단별로 유사한 용어와 개념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다른 문단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가?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나-1문단>

(나)의 초반부에서, (가)의 키워드가 반복된다면 (가)와 어떤 점이 연관이 있을지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을 봤을 때 (가)에서 나온 “도”라는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고, (가)에 나온 “도가의 도”와 (나)에 나올 유가의 “도”를 구분해둔 것을 볼 때 (가)의 내용과 비교-대조를 하거나, (가)의 내용에 대한 비판-반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독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유학자들은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인 도가의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해석했다네요. 이때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은 (가)에서 언급된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를 paraphrasing한 것이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가)와 (나)의 관계를 예측하며 독해할 수 있었는가? 각 문단별로 유사한 용어와 개념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나-2문단>

송나라 초기 학자 “왕안석”의 노자에 대한 입장이 나옵니다. (가)에 나온 한비자와 비교-대조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왕안석은 “도가의 도”를 ‘기’라고 파악하며, 현상 세계도 ‘기’와 함께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가)와 연결지어 인위적인 것이 곧 인간의 욕망이라고 파악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왕안석은 제도, 규범과 같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네요. 이 점은 (가)에 나온 한비자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해당 부분과 같이 타 학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확히 학자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했는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볼 때 제도, 규범 등 인간의 개입은 유학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는 1문단에 제시된 “유학의 도”를 따라가게 이끌어 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왕안석은 “도가의 도”, 즉 “기”가 변화함에 따라 현상 세계도 변화하고, 이에 맞추어 인간이 “유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와 규범을 제정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주장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①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나-3문단>

다음으로는 원나라의 학자 오징의 도교에 대한 입장이 제시됩니다. 앞의 왕안석과 비교-대조하며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오징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로 변질된 도교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교의 시초인 노자의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지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이는 사회의 안정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노자를 비판한 왕안석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노자와는 다르게 오징은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보았고, 이 ‘도’가 현실화되어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역시나 ‘노자의 도’를 가변적인 ‘기’로 바라본 왕안석의 주장과 대비되네요. 인의예지 역시 천지 만물의 하나로 봄으로써, 결국 유학과 노자의 도를 연결시킵니다.

정리하면, 오징은 “노자의 도가 현실화되어, 유학의 인의예지가 현실화되었다”라는 주장을 통해 도교의 도와 유학을 연결지었고, 이를 통해 주술적으로 변해가던 “도교”의 기원인 노자의 ‘도’는 유학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다른 문단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가?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나-4문단>

마지막으로 명나라의 학자 설해의 노자에 대한 입장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의 왕안석, 오징과 비교-대조하며 읽어줘야겠습니다. 설해는 ‘노자’의 해설을 통해, 노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노자’에 대한 주석서를 내놓습니다.

설해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 천명”으로 이해하여 도가의 도와 유가의 도를 연결지으며, 유학과 노자 사상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4문단에서 이어진 왕안석, 오징, 설해의 노자에 대한 주장을 비교-대조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왕안석	오징	설해
시대	송	원	명
주석서	『노자주』	『도덕진경주』	『노자집해』
핵심 주장	노자의 안정 방안 비판	도교의 가르침 경계	노자와 유학의 연결
‘도’에 관한 주장	가변적인 기(氣)	불변하는 도	도덕 본성, 천명

(나)는 1문단과 (가)에 제시된 노자의 도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고, 세 학자를 비교-대조하며 읽기를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세 학자의 비교-대조만으로도 버거웠을 것인데, 1문단에 제시된 “유가의 도”, “도가의 도”를 계속해서 뒤의 내용들과 연결짓지 못했다면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었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단의 핵심 질문 : 유사한 용어와 개념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는가? 서로 다른 문단의 내용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가?

<지문 Comment>

(가)-(나)로 구성된 지문을 읽을 때, 두 지문 사이의 연결지점이 보인다면 잘 연결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지문의 경우, (가)의 주제였던 ‘노자에 대한 해석’이 (나)에서도 핵심적인 주장이 되어, (가)에 제시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지점을 파악하며 읽었다면 글을 읽기 좋았을 겁니다. (가), (나) 곳곳에 인문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출제 Point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도’에 대한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동일한 서술로 잡아서 읽어줬어야 합니다. 모두 파편화된 정보로 읽으면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나)에서는 유사한 주장(노자에 대한 비판)을 하는 두 학자를 비교-대조하길 요구했는데, 이렇게 유사해 보이는 학자들의 입장을 미묘하게 비교-대조하는 경우에는 이 지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캐치해내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 이를 치밀하게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자에 대한 비판-반박이 나오는 경우에는 학자의 주장에서 어느 지점을 공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한비자와 왕안석, 오징 모두에게서 노자의 주장에서 어떤 지점을 비판했는지 지문 독해 과정에서 살펴봤으면 좋았겠습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코멘트>

(가)-(나)형 지문의 풀이 순서

이 지문과 같이 주제통합 독서 세트나 운문 문학을 다뤄 지문이 여러 개인 세트에서는 (가)-(나)를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게 아닌,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푼 후에 (나)를 읽고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푸는게 속도의 면에서도, 정확도의 면에서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 ① (가)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 ② (가)에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 ③ (나)에서는 “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죠. 너무너무 맞는 선지입니다.
- ④ (나)에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 ⑤ 두 지문 모두에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2.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 ① ‘도’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는 때와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는 개별 법칙의 통합이자, 사건의 시비 판단 기준이었죠. 여기서 손가락을 걸고 지나갔으면 완벽.
- ② 한비자는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법칙을 통해 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③ 한비자 역시 노자가 주장한 도의 가변성을 인정했습니다.
- ④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욕망의 제어, 즉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 ⑤ ‘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paraphrasing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정리] ㉠은 오징의 입장, ㉡은 설혜의 입장입니다. 두 학자의 노자에 대한 입장을 비교-대조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① 노자에는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진술은 틀렸습니다. 한편, 설혜는 유학 덕목과 노자를 연결지으려 했지,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 하진 않았습니.
- ② 오징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교의 주술성에 의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노자의 ‘도’와 유교가 같음을 주장했습니다. 허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A”와 “A의 B”의 비교를 요구하는 선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는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여,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 ③ 오징은 도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허용 가능한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설혜는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
- ④ 오징은 유학과 노자 사상을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도교의 기원은 유교와 같음을 주장했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한편, 설혜는 도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역시 허용 가능합니다.
- ⑤ 오징은 노자의 도와 유학을 연관지어 유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허용 가능합니다. 한편, 설혜는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려 하지는 않았습니.

<코멘트>

A ≠ A의 B

3-2번 선지처럼, 특정 키워드에 수식어로 다른 내용을 붙여서 기존 키워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드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술성과 ‘유교’의 주술성은 다른 내용이고, ‘도교’의 주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코멘트>

선 생각, 후 선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등장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땐, ㄱ~ㄴ에 대한 학자들의 O/X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선지로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게 빠릅니다.

- ㄱ. 왕안석과 오징 모두 도가 현상세계 이전에 존재하는 “도교의 도”임에는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동의하지 않을 주장입니다.
- ㄴ. 해당 주장은 오징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왕안석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징은 동의했을 겁니다.
- ㄷ. 왕안석은 도의 변화에 따라 현상 세계가 바뀐다고 주장했고, 오징은 도가 현실화된 게 인의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도와 세상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 ㄹ. 해당 주장은 왕안석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왕안석은 동의했을 것이고, 오징은 동의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가 되겠습니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기 독해>

<보기>는 지문의 새로운 문단!!

지문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왕부지’의 주장이 나오네요. 지문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읍시다. 왕부지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했다고 하네요. 기존의 노자 주석서, 즉 한비자와 왕안석, 오징과 설해의 주석서는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 즉 한비자는 법가의 사상/나머지 세 명은 유가의 사상을 기준으로 잡았기에 “노자”뿐이 아닌 주석자들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비현실성’입니다. 그러면서 유학 규범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이는 왕안석, 한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 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한비자와 왕부지가 같은 입장을 가집니다.
- ②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왕안석과 왕부지가 같은 입장을 가집니다.
- ③ 보기에서 제시된 주장과 같습니다. 또한 (나)에서 오징은 ‘도’에 대해 노자와는 다르게 불변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이런 점에서 해당 비판은 허용 가능합니다.
- ④ 3번 선지와 일맥상통합니다.
- ⑤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를 비판한 것은 맞지만, 설해는 노자 사상의 가치를 부각했지, 유학의 가치를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선지의 전건이 ‘~하므로’를 통해 후건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지문 Comment>

이번 문학에서도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 한 선지 안에서 판단할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더럽습니다. 3, 4, 5번이 모두 (가)와 (나)에 나온 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비교-대조했는지 매우 세부적으로 묻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했다면 문제에서 상당히 고전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인문 지문을 읽을 때에도 비교-대조는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4학년도 6평, 9평, 그리고 수능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이제 충분히 인문 제재의 주제통합 지문이 독서 3세트들 중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BS 학습도, 기출 학습도 꼼꼼하게 해 두길 권합니다.

+) 어휘 문제인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MEMO>

<MEMO>

Blank memo area for the left column.

Blank memo area for the right column.

[인문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4.09

(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㉔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㉕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직역 :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나)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 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㉖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

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㉗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㉘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1.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2.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 ② ㉠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 ④ ㉠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4.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ㄴ.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ㄷ.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ㄹ.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ㄱ과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ㄴ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5.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6.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 ②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 ③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 ④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 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인문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11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 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 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8.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가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9.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10.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11.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1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인문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9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①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 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②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 한

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③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④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⑤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⑥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⑦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13.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①~⑤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①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②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③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④
		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14.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15.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16.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17.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맞바꾸는
- ② ㉣ : 동떨어진
- ③ ㉤ : 바라보는
- ④ ㉢ : 빼앗는다
- ⑤ ㉣ : 찾아내는

인문 - 엮어읽기		
신분제 개혁론	21.11	④ ⑤ ③ ⑤ ⑤ ①
북학론	21.11	① ④ ⑤ ③ ④ ③
아도르노	23.09	③ ① ⑤ ⑤ ③ ①

<엮어읽기 Comment>

이번 수능의 출제 요소들을 반복해서 연습해보도록, 주제 통합 지문 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동양철학 지문으로, 24학년도 수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약용'과 '유형원'의 미묘한 비교-대조를 잘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번 수능의 네 번째 문제에서 출제된 형식을 그대로, 더 어렵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21학년도 수능 동양철학 지문으로, 위의 2409와 마찬가지로 '박제가'와 '이덕무'의 미묘한 비교-대조를 요구합니다. 수능 지문과 마찬가지로, 대립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비교-대조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트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예술 지문입니다. (가) 지문에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제시되는데, 이번 수능 (가) 지문에서 보여준 paraphrasing을 잘해서 비슷한 말들을 묶어서 받아들여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지문에는 아도르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번 수능 (나) 지문에서 왕안석, 오징을 독해했던 것처럼 '어느 지점을 비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좋을 겁니다.

<MEMO>

〈MEMO〉

* 마지막 메시지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자료 업로드 요청을 들어주신
원작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모든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